



“날 붙잡아 준 건 아이들... 학생들과 호흡하며 살고파”

2025년 ‘올해의 스승상’ 7명의 교사 시상



2025년 ‘올해의 스승상’ 수상자들. 왼쪽부터 김보경 · 구은복 · 홍성애 · 김역만 · 신승진 · 조대기 · 장경진 교사



우리 재단과 교육부, 조선일보사가 공동 제정해 운영하는 2025년 ‘올해의 스승상’ 시상식이 12월 23일 오후 조선일보사 편집동 ‘조이’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날 시상식에는 학교 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7명의 교사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열정과 헌신으로 교단을 지켜온 교사를 발굴하고 그 공로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지난 2002년 제정된 ‘올해의 스승상’은 올해 수상자를 포함해 지금까지 261명의 선생님이 받았다. <2면에 계속>

서중회원 검색 웹사이트가 출범했습니다 관련기사 7면



김도연 '올해의 스승상' 심사위원장(왼쪽 첫 번째), 변용식 방일영문화재단 이사장(왼쪽 두 번째),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오른쪽 두 번째), 방준오 조선일보사 사장(오른쪽 첫 번째)과 수상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1면에서 계속〉 영예의 수상자는 대전 학하초등학교병설유치원 김보경 교사, 김해 관동초등학교 구은복 교사, 대구 고산초등학교 홍성에 교사, 전주공업고등학교 김억만 교사, 울산 삼일고등학교 신승진 교사, 인천 과학예술영재학교 조대기 교사, 서울서진학교 장경진 교사 등 7명이다. 수상자에게는 교육부 장관 표창과 상금 2,000만 원씩이 수여됐다.

27년간 장애학생을 지도한 장경진 교사는 “특수 교육 현장은 정답보다 질문이 더 많은 자리를 차지한다. ‘이 학생이 왜 이럴까’ ‘나의 행동은 적절한가’ 하는 고뇌가 너무 힘들어 그만두고 싶을 때가 많았다. 그때마다 아이들이 저에게 잘하고 있다고 표정으로 알려줬기에 계속 교단에 설 수 있었다. 퇴직 날까지 아이들과 함께 호흡하며 살고 싶다”고 수상 소감을 말했다.

‘한울회’ 를 소개합니다.



‘올해의 스승상’ 수상 교사들의 친목 모임인 한울회는 교육자로서의 삶을 나누고 교육의 본질과 그 가치를 지켜가고자 하는 교육 공동체이다. ‘올해의 스승상’이 창립된 2002년 발족한 한울회는 매년 전국 수상자들이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지며 교육철학을 나누고 현장 경험을 공유하는 연찬회를 이어오고 있다.

지난 7월 거제도에서 열린 1박 2일 연찬회에는 13명의 역대 수상 교사들이 모였다. 모임에서는 ‘거제를 가까이’라는 주제로 거제포로수용소, 청마 기념관 등을 탐방하며 거제에 대한 이해의 시간을 가졌다.

2025년 ‘올해의 스승상’ 수상자 공적

김보경 대전학하초등학교병설유치원 교사

- *전인적 발달과 인성·진로 교육을 실천하고, 특기 및 체험 중심 교육을 통해 예술적 감수성을 함양.
- *학부모와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신뢰받는 교육환경 조성.

구은복 김해관동초등학교 교사

- *미래형 수업 혁신을 선도하고, 재능 기부 봉사 및 소외계층 영재교육을 통해 공교육의 가치 확장.
- *외부 강의로 전액 기부, 안전·선물교육 확산, 학생 진로 성장을 지원.

홍성애 대구고산초등학교 교사

- *끊임없는 자기 연찬으로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통해 과학교육, 예술교육, 영재교육 등 다방면에서 쌓은 소양을 학생, 동료 교사와 함께 나눔으로써 교육혁신에 기여.
- *학교폭력 예방 및 인성교육의 실현으로 제자 사랑을 실천.

김억만 전주공업고등학교 교사

- *매년 새로운 주제의 프로젝트를 통해 사제 동행 동아리

활동을 운영하며, 학생들이 진로를 탐색하고 원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줌.

신승진 울산삼일고등학교 교사

- *AI·STEAM 융합수업, 보조공학 프로젝트, 국제 교육봉사, 교사 연수, 교과서 집필 등 다양한 교육 실천을 통해 학생, 동료교사와 배움과 나눔을 실현하여 미래교육 혁신과 포용교육 확산에 기여.

조대기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교사

- *인성교육을 중시한 공학 연구활동 지도를 통해 국제, 국내 대회에서 우수한 연구 실적을 냄.
- *과학홍보 및 봉사활동으로 과학 문화 확산에 기여.

장경진 서울서진학교 교사

- *27년간 특수교육 진로교육에 헌신하며 실무 중심 교육 모델 개발, 거점학교 운영, 국가 교육과정 참여 등 장애 학생 진로교육 발전에 기여.

동아리 활동을 지도한 공로로 수상한 김억만 교사는 “방황하던 학생이 동아리에서 꿈을 찾는 모습을 보며 큰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 주말에도 동아리 활동을 지도해온 홍성애 교사는 “남은 교직 생활을 더 열심히 해서 학생들에게 빛나는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밝혔다.

방준오 조선일보사 사장은 인사말에서 “공교육이 기본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모두 선생님들 덕분이다. 제자들은 선생님들의 가르침을 나침반으로 삼아 더 나은 미래로 향해한다. 앞으로도 제자들의 인생에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달라”고 말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오늘 수상하신 선생님들의 값진 경험과 전문성이 학교 현장을 회복시키고 수업 혁신을 일으키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널리 공유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격려사를 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올해의 스승상’ 심사위원장인 김도연 서울대 명예교수를 비롯해 조선일보사의 방준오 사장, 홍준호 발행인, 변용식 재단 이사장, 올해의 스승상 수상 교사 모임인 ‘한올회’ 회원, 수상자 가족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방일영국악상 제32회 수상자 정순임 명창이 제자들과 함께 우리소리의 멋과 흥을 한껏 돋우었다.

제32회 방일영국악상 정순임 명창 수상

“일평생 지켜온 소리길... 남은 인생, 더 멀리 울리고파”

우리 재단이 국악 발전에 크게 공헌한 분들을 기리기 위해 제정한 제32회 방일영국악상 수상자로 국가문화유산 제5호 판소리 ‘홍보가’ 보유자인 정순임(83) 명창이 선정됐다.

11월 18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정 명창은 상패와 상금 8000만 원을 받았다.

전남 목포에서 태어난 정 명창은 20대 중반부터 어머니를 따라 경북 경주에 정착했다. 스스로는 ‘뒤섞인 소리’라며 곁양을 표했지만, 영호남을 넘나들며 동편과 서편 발성을 조화롭게 익힌 예인은 흔치 않다.

정 명창은 외종조부 ‘장판개’, 모친 ‘장월중선’으로

이어지는 판소리 명가의 후손으로 소리 인생의 원동력으로 모친인 ‘장월중선’ 명창을 늘 꼽는다.

모친이 전쟁 고아 등의 교육을 위해 설립한 목포 국악원에서 일곱 살 때 소리를 시작해 15세에 정식 소리꾼으로 입문했고, 40대에 국립창극단에 들어가 주연급으로 활약했다. 이후 스승 박송희 명창으로부터 ‘홍보가’를 배워 보유자가 됐다.

국악 불모지라 불리던 경주에서 한국전통예술진흥회 경주지회장, 한국판소리보존회 경북지부장 등을 역임하며 판소리 보급에 앞장섰다. 1996년 동국대 한국음악과를 시작으로 부산대, 목원대, 중앙대, 영남대, 경북



역대 방일영국악상 수상자, 심사위원, 변용식 재단 이사장과 조선일보사 방준오 사장이 자리했다.



변용식 재단 이사장이 방일영국악상 제32회 수상자에게 상패를 수여하고 있다.

대 등에 출강해 국악 후학들을 이끌었다.

정순임 명창은 수상 소감에서 “일평생 판소리만 알고 살았고, 윗대부터 이은 소리 길을 죽자사자 지켰다. 이토록 좋은 상이 정말 꿈같고 감격스럽다”며 “남은

인생 제자를 많이 양성해 우리나라 구석구석에 판소리를 보급하고 싶다”고 했다.

윤미용 방일영국악상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회에서 정 명창이 거론되자마자 올해의 수상자란 반응이 단번에 나왔다. 굳건한 동편제로도, 구슬픈 서편제로도 홍보가를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특출난 예인”이라고 평했다.

축사를 맡은 서한범 단국대 명예교수는 “일상에서 가까이 지켜본 정 명창은 무대 위에 올라야만 젊음을 유지하는 소리꾼”이라며 “그 열정과 순수한 울림이 경주뿐 아니라 한반도 전체로 널리 퍼져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1부 시상식에 이어 2부 순서인 축하공연에서는 정 명창과 제자들이 우리 소리의 멋과 흥을 한껏 돋우었다.

정 명창은 단가 ‘인생백년’으로 흥을 돋웠고, 이어 그의 대표곡인 판소리 ‘홍보가’ 중 박 타는 대목을 선보여 청중을 들뜨이게 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역대 수상자인 이생강(12회) · 이재숙(24회) · 김일구(28회) · 정대석(30회) · 이영희(31회), 심사위원인 김영재 명인, 김영운 전 국립국악원장, 임미선 한국국악학회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중식 전 국회의원, 조연홍 전 방일영문화재단 이

사장, 김중채 임방울국악진흥회 이사장, 이원식 전 경주시장, 이영선 통일과나눔 이사장 등도 함께했다. 변용식 재단 이사장과 방준오 조선일보사 사장, 홍준호 조선일보 발행인, 김창기 조선일보미디어연구소 이사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서중회비 납부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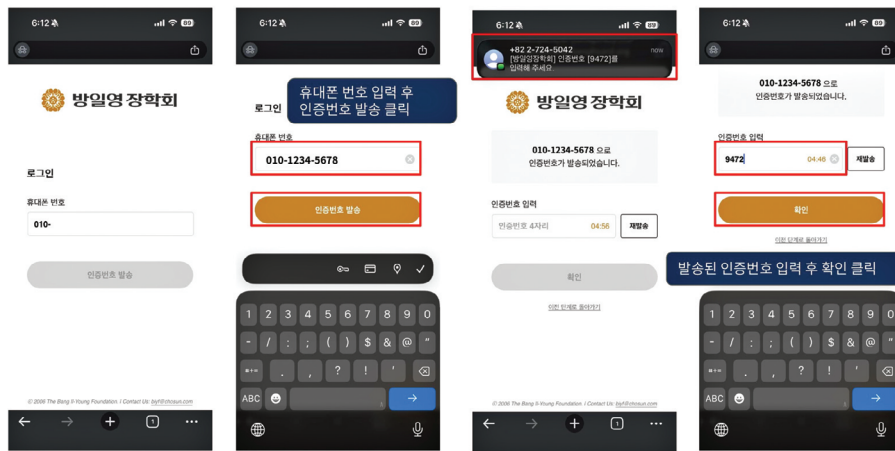
서중회원 여러분, 2026년도 연간회비를 납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대상은 서중회원 중 졸업 후 5년차 이상 되시는 분입니다.
- ♣ 회비는 연간 10만 원입니다.
- ♣ 보내실 통장은 신한은행 110-362-284657로 예금주는 총무인 '김영철'입니다.
송금 시 성함과 기수를 함께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 회원 경조사 시 30만 원이 지급되오니 총무 김영철(010-3503-9214)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서중회원 웹사이트 12월 31일 오픈

회원간 유대 강화, 친목 도모, 정보교환 등에 유용

로그인 방법



재단은 서중회원 간의 원활한 교류를 돕기 위해 ‘서중회원 디지털 명부’ 웹사이트를 구축하여 12월 31일 오픈했습니다.

서중회원들의 직장과 연락처가 담긴 이 웹사이트는 회원간 유대 강화와 친목 도모, 정보교환 등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2016년까지는 서중회원 수첩을 매년 제작해 회원들에게 배포했으나 개인정보 유출 우려로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회원들의 빗발치는 요청으로 웹사이트를 만들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대학 졸업 후 5년이 지난 45기까지 수록했습니다. 매년 1기씩 추가하여 업데이트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재단은 보안문제를 최우선으로 두고 관리할 계획입니다. 만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회원들의 협조 없는 보안 유지가 어렵습니다.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서중회원 검색 웹사이트 이용법〉

1. ‘휴대폰 인증’ 로그인 방법 (PC, 모바일 동일)

(로그인 URL은 보안 관계상 회원들 개인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URL 링크를 눌러서 접속합니다. 휴대폰 번호 010 뒤 8자리 입력 후 ‘인증번호 발송’ 버튼을 누릅니다. 인증번호 4자리 입력 후 바로 밑에 ‘확인’ 버튼을 누르면 로그인이 완료됩니다. (핸드폰 번호가 변경된 분들은 재단으로 연락해주셔야 합니다.)

2. 이용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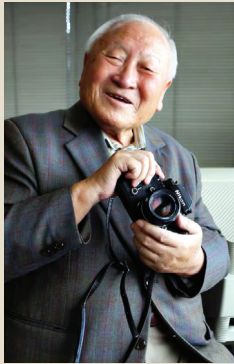
- 1) ‘전체’를 선택 후 검색어를 입력하거나 예시: 직업 직군별(ex.변호사, 회계사, 교수 등)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2) ‘기수’ 숫자를 선택하면 기수별로 회원 확인이 가능합니다.

3. ‘내 정보’ 수정 방법

정보 수정을 원하는 회원들은 오른쪽 상단 ‘내정보’ 눌러서 수정 항목 선택> 수정요청정보 입력> ‘정보 수정 요청하기’ 버튼 누르기 순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연락 가능한 이메일이나 연락처를 수정사항과 함께 남겨주세요
 ※사진 변경을 원하는 회원들은 위 방법으로 ‘정보수정요청’을 하신 후 biyf@chosun.com로 사진 파일을 보내주세요.

윤주영 초대 이사장 별세



우리 재단의 초대 이사장을 역임한 윤주영 선생이 지난 1월 6일 별세했다. 고인은 조선일보 논설위원 및 편집국장을 지냈고 민주공화당 대변인, 칠레 대사, 청와대 대변인을 거쳐 문화공보부 장관, 국회의원 등을 지냈다. 문공부

장관 시절 투철한 실행력으로 ‘뚝심 있는 장관’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후 사진작가로 제2의 인생에 도전하여 지구촌 곳곳을 찾아 삶과 죽음의 경계, 전쟁으로 폐허가 된 모습 등을 사진집으로 펴내 다큐멘터리 사진가로 이름을 날렸다.

1993년 방일영문화재단이 설립되자 초대 이사장으로 선임되어 언론 창달 및 교육·문화사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언론·학술·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방대한 전문 서적을 발간했다.

안병훈 2대 이사장 별세

우리 재단의 2대 이사장을 역임한 안병훈 선생이 지난 10월 31일 별세했다. 고인은 서울대법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뒤 해병대에서 장교로 복무했다. 1965년 조선일보에 입사한 후, 정치부장, 사회부장, 편집국장, 대표이사 부사장 등을 역임했다. 이외에도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회장, LG상남 언론재단 이사장, 관악언론인회 회장, 도서출판 ‘기파랑’ 사장, 통일과나눔재단 이사장 등을 지냈다. 언론사 경영인으로 ‘쓰레기를 줄입시다’ ‘셋강

을 살립시다’ 같은 환경 캠페인과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보화는 앞서가자’는 IT 강국 운동을 진두지휘했다.



또 좌편향된 현대사를 바로잡기 위해 ‘이승만과 나라 세우기’ 프로젝트를 주도하였다.



김영재 명인, 국악 인생 65주년 기념 공연

방일영국악상 22회 수상자이자 방일영국악상 심사위원인 김영재 명인이 10월 30일 서울 국립

극장 하늘극장에서 국악 인생 65주년을 기념하는 ‘금사풍류악가무(琴史風流樂歌舞) 축제’ 공연을 가졌다. 중요무형문화재 거문고산조 보유자인 김 명인은 악가무(樂歌舞)에 모두 능한 국악인으로 널리 알려져 있

다. 거문고뿐 아니라 가야금, 판소리, 무용, 작곡 등에 두루 능통한 이름 그대로 ‘영재(英才)국악인’으로 불린다. 특히 ‘깡깡이’로 천시받던 해금을 ‘21세기 국악기의 제왕’으로 끌어올린 일등 공신으로 꼽힌다.

이날 공연에서 김 명인은 거문고 병창 ‘팔도유람가’, 신평동류 거문고산조합주, 김영재류 해금산조 합주, 해금독주 ‘아리랑 연곡’에 이어 피날레로 대풍류에 맞춘 춤사위를 펼쳐 악가무가 어우러진 풍류의 진면목을 보여주었다.

제37회 이중섭미술상에 광남신 작가 수상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이 길을 밀고 나가겠다”



제37회 이중섭미술상 시상식에 참석한 역대 수상자와 운영위원 및 심사위원. 왼쪽부터 김봉태·정복수·정경연·김중학·권순철·오원배·황용엽·김을·광남신(올해 수상자)·윤동천 작가, 홍준호 조선일보 발행인, 운영위원인 김영순 전 부산시립미술관장과 정현 조각가, 오숙환 작가, 심사위원 서성록 미술평론가, 배병우 작가, 운영위원 김선두 한국화가.

우리 재단과 조선일보가 공동 주최하는 제37회 이중섭미술상 시상식 겸 수상기념전 개막식이 11월 6일 서울 광화문 아트조선스페이스에서 열렸다.

올해의 수상자인 광남신은 회화, 판화, 드로잉, 조각, 설치 등 다양한 작업을 통해 현대 사회의 허상과 삶의 모순을 성찰해온 화가다.

1979년 식물 그림자를 그린 그림으로 데뷔한 그는 당대에 유행한 단색화나 민중예술에 머무르지 않고 프랑스 유학을 떠나 자신만의 길을 모색했다.

파리 국립장식미술학교 졸업 후 2018년 정년을 맞을 때까지 모교인 홍익대와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후학을 양성했다. 이번 수상 기념 전시 ‘네 아니요’에선 그의 대표적인 작업인 그림자와 실루엣을 모티브로 한 25점의 작품들을 선보였다.

심사평을 발표한 심사위원 정일주 퍼블릭아트 편집장은 “광남신의 예술이 걸어온 행보는 요란하지 않고 품위가 있다. 당대를 주도했던 모더니즘 미술의 근엄주의와 형식주의에 놀리거나 치우치지 않았



고, 그럴싸하게 들리는 ‘후기’나 ‘해체’ 운운하는 담론에 편승하지도 않았다”며 “무겁지 않지만 진지하고, 선언하거나 설득하려 들지 않지만 메시지와 진정성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점에서 이중섭과 교차한다”고 밝혔다.

광남신 작가는 수상소감에서 “사실 저는 이 나이 먹도록 늘 제 일에 조금은 회의적이며 이게 과연 우리 삶에 도움이 되는 일일까 걱정을 한다”며 “자본의 힘이 모든 가치를 좌지우지하는 세상에서 올바른 예술이 무엇일까 고민하다 보면 종종 남들과 동떨어진 일들을 시도하기도 한다”고 했다. 이어 “이번 수상을 계기로 저도 더 이상 회의하지 않고 제 나름대로 추구해 오던 생각들을 더 열심히 밀고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역대 이중섭미술상 수상 작가 황용엽·배병우·김을·정복수·윤동천·김봉태 씨와 조각가 정현, 화가 김중학, 김영순, 김선두 등 이중섭미술상 운영위원, 홍준호 조선일보 발행인, 변용식 방일영문화재단 이사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제42회 최은희여기자상 시상식

SBS 곽상은 정책문화부 부장 수상



수상자 곽상은 부장(앞줄 가운데)이 역대 수상자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우리 재단이 상금을 후원하는 제42회 최은희 여기자상 시상식이 10월 20일 서울 한국프레스 센터에서 열려 SBS 곽상은 정책문화부 부장이 상패와 상금 2000만 원을 받았다.

곽 부장은 입사 2년 만에 SBS 8시 뉴스 진행자로 발탁되어 정치부, 사회부, 국제부, 파리 특파원 등을 두루 거치며 25년간 언론 현장을 누볐다. 2022년 한국 기자 중 처음으로 우크라이나 현지를 취재했고, 지난 6월에는 이스라엘·이란 전쟁의 공습 현장을 찾아 전쟁의 참상을 보도했

다. 한국의 시선으로 국제 보도의 영역을 확장한 부분이 높게 평가받아 이번 수상으로 이어졌다.

곽 부장은 “폐허가 돼 버린 도시의 참상도, 방공호에 숨어 공포에 떠는 아이 어머니의 불안한 마음도, 만삭의 아내를 낳긴 채 영장을 받아 떠나야 하는 남편의 애끓는 마음도 총 든 교민들의 긴장도 모두 현장에 녹아 있었다”고 했다.

이어 “고통의 순간에도 자신의 이야기를 세계 말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수상 소감을 말했다.

제33회 임방울국악제 방일영상에 김소진 씨



방일영상을 수상한 김소진 씨



대통령상을 수상한 김정훈 씨

우리 재단이 협찬하는 제33회 임방울국악제 (주최 광주광역시·특별후원 조선일보사) 결선이 9월 15일 광주광역시 빛고을시민문화회관에서 열려 명창부 대상인 대통령상에 소리꾼 김정훈(32) 씨가, 우리 재단이 수여하는 최우수상인 방일영상에는 김소진(37) 씨가 받았다.

임방울국악제는 임방울 명창의 예술혼을 기리는 국악 축제로 명창부·일반부·학생부 총 72명에게 시상하는 국내 최대 국악 경연 대회다.

광주예고, 서울대 국악과와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한 김소진 씨는 “평소 창작 판소리 활동을 꾸준히 이어온 것이 경연 무대 위 소리 연기에 큰 도움이 된 것 같다”며 “전통 소리의 매력과 기반을 더욱 널리, 잘 전하는 소리꾼 활동으로 방일영상이라는 큰 상에 보답하고 싶다”고 했다.

김 씨는 소리꾼 이자람과 협업한 창작 단편선 ‘추물’, 창작 판소리 ‘레미제라블’ 등에서 활약하며 대학로 연극계에서 판소리 협업을 주도적으로 이끈 젊은 소리꾼으로 꼽힌다.

제16기 탈북장학생 10명 선발

재단은 11월 26일 제16기 탈북장학생 10명을 선발했다. 이로써 2010년부터 선발된 탈북장학생은 모두 152명으로 늘어났다. 이들은 각 대학의 추천을 받아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선발됐으며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2학년 1학기부

터 4학년 2학기 졸업 때까지 일정액의 생활보조 장학금을 받는다. 이번에 선발된 장학생은 경희대·고려대·국민대·동국대·서강대·숭실대·이화여대·중앙대·한국외대·홍익대 등 각 1명씩이다.

제9회 한글글꼴창작지원자 선정

한자 예서체의 특징을 한글에 적용한 ‘너울체’



김진희 씨 김슬기 씨 이수현 씨

우리 재단이 후원하고 (사)한국타이포그라피학회가 주관하는 ‘한글글꼴창작지원사업’의 제9회 수혜자로 ‘누타입’의 공동대표인 김진희, 김슬기, 이수현 씨 등 3명의 디자이너가 선정되었다.

이번 제9회 선정은 1차 서류심사와 2차 비대면 블라인드 심사를 거쳐 지난 7월 학회의 SNS계정을 통해 발표했다.

우리 재단이 후원하고 (사)한국타이포그라피학회가 주관하는 ‘한글글꼴창작지원사업’의 제9회 수혜자로 ‘누타입’의 공동대표인 김진희, 김슬기, 이수현 씨 등 3명의 디자이너가 선정되었다.

선정된 ‘너울체’ (글꼴 가제)는 한자 예서체의 구조적, 형태적 특징을 한글에 적용했다. 넓적하되 서정적인 인상으로 한글 명조체나 해서체의 형태를 재구성한 본문용 글꼴이 아닌, 가로획의 흐름이 강조된 독특한 리듬을 가진 글꼴이다.

또 한자 예서체의 가로획에서 느껴지는 인상을 한글에서도 적용하기 위해 글자의 중앙 부분이 상단으로 올라가는 형태로 주조가 설계됐다.

(사)한국타이포그라피학회 심우진 위원장은 “올해는 예년에 비해 우수작이 많아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면서 “추후 상용화를 위한 보완 작업을 거쳐 완성된다면 큰 반향을 불러올 서체가 되리라 본다”고 평했다.

밤
꽃
한글글꼴과를밤꽃를
를술를계를단를의를월
일를새를벽를맑를은를



한글글꼴창작지원사업 웹사이트 공개

우리 재단이 후원하는 한글글꼴창작지원사업(방일영 문예지원기금)의 웹사이트가 지난 3월 공개됐다. 이번에 오픈한 웹사이트는 한글글꼴창작사업을 쉽게 설명하고 역대 선정작을 아카이빙하고, 새로운 선정작의 온라인 전시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독창적인 ‘본문용’ 글꼴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성격을 잘 담기 위해 메뉴를 짧은 글로 풀어쓴 형식으로 구성하였으며, 역대 선정작인 폰트들을 방문자가 직접 바꿔볼 수 있도록 했다. 웹사이트 주소는 <http://geulchangji.kr>

제53기 방일영장학생 17명 선발

재단은 11월 14일 제53기 방일영장학생 17명을 선발했다.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학년 1학기부터 4학년 2학기 졸업 때까지 등록금

전액과 매월 70만 원의 생활 보조장학금이 지급된다.

각 대학의 추천을 받아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해 선발된 제53기 방일영장학생들은 아래와 같다.



김도현
(서울대 통계학과)



김민채
(서울대 수리과학부)



김선찬
(서울대 경영학과)



김승유
(서울대 불어불문학과)



김세슬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박소윤
(고려대 경영학과)



배강민
(서울대 수리과학부)



송건
(서울대 미학과)



염윤아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이수빈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이용제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이혜린
(서울대 역사학부)



장우익
(연세대 물리학과)



조수림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주정현
(서울대 중어중문학과)



채은재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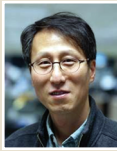


최유빈
(고려대 화학과)

2025년도 언론인 저술지원자 28명 선정

상·하반기 각 14명씩

[2025년 상반기 저술지원 대상자]



김철영
(KBS 국제부 기자)



김경훈
(로이터통신 도쿄지국
사진기자)



김미림
(TBS 콘텐츠 PM)



김봉규
(전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김창수
(도시공감연구소장)



김한수
(조선일보 종교전문기자)



김현중
(한국일보 국제부 기자)



김형진
(중앙일보 편집부 기자)



김형호
(MBC강원영동 보도국 부장)



서영아
(동아일보
콘텐츠기획본부 기자)



심석태
(한국언론법학회 회장)



이경은
(조선일보 여론독자부
차장대우)



이대진
(부산일보
스포츠라이프부 차장)



이연
(선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
학부 명예교수)

재단은 2025년도 언론인 저술지원 대상자를 상반기 14명, 하반기에 14명을 선정했다. 이들에게는 각 80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2025년 하반기 저술지원 대상자]



강성곤
(가천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외래교수)



김상진
(대구일보 편집국 부국장)



김주환
(전 YTN 보도국 부국장)



김형국
(가나문화재단 이사장)



문관현
(연합뉴스 국제경제부 부장)



손은혜
(KBS 뉴스제작부 기자)



유건식
(KBS 시청자서비스부 국장급)



윤성민
(중앙일보 정치부 기자)



윤진호
(조선일보 콘텐츠앤시전략팀 기자)



이경재
(YTN 스포츠부 부장)



이종근
(새전북신문 편집부국장)



전상인
(서울대 환경대학원 명예교수)



정한국
(조선일보 산업부 차장대우)



최형철
(한국일보 뉴스룸국신문에디터)



강원도 평창에서의 1박 2일 특별한 시간

함께 음식 만들고, 루지 타고, 바비큐 굽고, 불링 치고, 워터파크에서 우의를 다져

방일영장학회 여름 수련회가 6월 27일부터 28일까지 강원도 평창 휘닉스파크에서 1박 2일간 진행되었다. 지난 5월 월례회에 참가했던 기억이 아직 생생한 가운데 이번에는 올해 초 장학증서 수여식 때 저녁을 함께했던 광화문 코리어나 호텔 로비에서 다시 만났다.

먹는 것으로 시작해서 먹는 것으로 끝난 수련회

10시에 전세 버스에 올라 본격적인 여행이 시작되었다. '먹는 것으로 시작해서 먹는 것으로 끝난다'는 방일영장학회 수련회답게 버스 안에서부터 맛있는 샌드위치와 제공됐다. 모두 즐겁게 아침 한 끼를 해결했다. 휴게소에서 잠깐 쉬고 도착한 곳은 드라마 '식객' 에도 나온 한국전통음식문화체험관 정강원이었다. 국장님께서 2015년 장학생 수련회 때 이곳을 방문한 뒤 무려 10년 만이라고 하시며 감회를 표하셨다.

정강원에서는 강원도의 아름다운 정원

풍경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무엇보다 우리가 직접 음식을 만드는 체험을 할 수 있어 특별했다. 감자를 직접 강판에 갈아, 모양은 사납지만 직접 부쳐서 먹어도 보고, MSG를 사용하지 않은 건강한 비빔밥을 만들어 한 끼를 해치웠다. 직접 만든 음식과 건강한 재료만을 사용해서 그런지 더욱 맛있게 느껴졌고, 장학생들 사이에서도 자연스럽게 대화가 오가기 시작했다.

짜릿한 속도감과 시원한 바람, 루지 체험

점심을 맛있게 먹은 후 다시 버스를 타고 평창 휘닉스파크로 향했다. 숙소에 짐을 놓은 뒤 서둘러 루지를



타러 갔다. 곤돌라를 타고 산 정상으로 올라갈 때는 쨍쨍한 햇빛 때문에 더위에 지쳤지만, 루지를 타고 내려올 때는 시원한 바람 덕분에 더위도 잊고 짜릿한 속도감을 만끽할 수 있었다. 너무 재미있어서 두 번이나 탔는데, 내려올 때마다 느끼는 쾌감은 정말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다.

함께 만드는 추억, 바비큐와 볼링

잠깐의 자유시간을 가진 뒤 저녁에는 야외에서 바비큐를 먹었다. 장학생들이 조를 짜서 직접 고기를 구워먹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었는데, 이때부터 서로 간의 어색함이 많이 풀렸다. 각자 고기 굽는 실력을 뽐내기도 하고, 학교 생활은 어떤지 답소를 나눈 뒤 서로 챙겨주며 먹는 모습이 정말 훈훈했다. 공기 좋고 탁 트인 자연에서 맛있는 고기를 마음껏 먹다보니 식당 측에서 준비해둔 고기가 떨어져 더 먹을 수가 없을 정도였다.

저녁을 다 먹고 난 뒤에는 휘닉스파크 내부에 있는 볼링장으로 이동했다. 볼링을 잘 치는 장학생도 있었고, 처음 쳐보는 장학생도 있었지만 모두 함께 어울리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스트라이크가 나올 때마다 터지는 환호성과 거터볼이 나올 때의 아쉬운 탄식소리가 볼링장을 가득 메웠다.

그 후 편의점에서 간식과 마실 것을 사서 각자 방에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처음에는 약간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에 대해 알아갈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상쾌한 아침과 신나는 워터파크

다음 날 아침 휘닉스파크의 조식 뷔페에서 푸짐한 아침을 먹었다. 어제의 피로가 아직 가시지 않은 장학생들도 있었지만 다들 비몽사몽한 상태에서도 맛있는 아침식사를 즐겼다.



그 후 웰리힐리파크로 이동하여 워터파크에서 시간을 보냈다. 비가 올 것이라는 예보가 있어 걱정했지만 다행히 비가 오지 않아 선선한 날씨에서 물놀이를 즐길 수 있었다. 워터파크에서 슬라이드를 타고, 파도풀에서 놀며, 온천탕에서 휴식을 취하는 시간은 정말 즐거웠다.

소중한 인연과 감사한 마음

이들간의 신나는 수련회를 마치고 서울로 돌아와 보조장학금을 받은 후 여름 수련회는 끝이 났다. 이번 장학회 수련회는 처음에는 서먹했던 장학생들끼리 가까워지며 친해질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 함께 음식을 만들고, 루지를 타고, 바비큐를 구워먹고, 볼링을 치고, 워터파크에서 놀며 자연스럽게 마음의 벽이 허물어졌다. 방학 동안에는 월례회가 없는 것이 아쉬울 정도였다.

무엇보다 이런 뜻깊은 시간을 마련해주신 방일영 장학회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단순히 장학금을 지원해주는 것을 넘어 장학생들이 서로 교류하고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셔서 정말 감사했다. 앞으로도 장학생으로서 더욱 열심히 공부하고, 나중에는 나 자신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는 수련회였다.

정리 김재원(고려대 경영학과2학년 · 장학회 52기)



재단 신임 사무국장에 김기철 전 조선일보 문화부장



우리 재단 신임 사무국장에 김기철 전 조선일보 사료연구 실장이 10월 1일 자로 취임했다. 김 사무국장은 1992년 12월 조선일보 수습기자로 입사해 문화부장, 논설위원(문화 담

당), 학술전문기자로 활약하면서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 '서강언론상' '삼성언론상' 특별상 등을 수상했다. 지난 9월 30일 사료연구실장을 마지막으로 정년을 맞았다. 김 국장은 재단 업무를 총괄하면서 신문박물관인 '조선일보 뉴지엄' 관장직도 맡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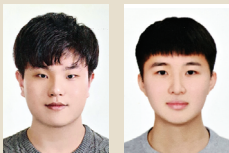
서중회, 유광선 재단 사무국장에 감사패 전달

서중회 전·현직 회장단이 지난 12월 5일 서울 광화문 코리아나호텔에서 12월 말일 자로 퇴임하는 유광선 재단 사무국장과 식사를 함께하며 지난 14년간의 노고를 위로하는 뜻이 담긴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날 모임은 유 국장이 조선일보 총무부 과장·차장으로 방일영장학회 실무를 맡아보던 시절, 장학생으로 선발됐던 회원 중 전·현직 회장단이 유 국장의 퇴임 소식을 듣고 마련했다.

모임에는 우병현(11기), 김도영(14기), 정익상(17기), 이동혁(18기), 김영철(24기) 등이 참석해 30여 년 전 학창 시절의 즐거웠던 추억을 회상했다.



장학회 48기 전호연, 최민석 CPA 합격



전호연

최민석

방일영장학회 48기 전호연 군(서울대 경제학부 4학년)과 최민석 군(고려대 경제학과 4학년)이 2025년 제60회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했다.

허가영 감독, 칸 국제영화제 라 시네프 부문 1등상

서중회 44기인 허가영(29) 영화감독이 지난 5월 제78회 칸 국제영화제 라 시네프 부문에서 단편영화 ‘첫여름’으로 1등상을 받았다. 한국 작품이 이 부문에서 1등상을 차지한 것은 처음이다.

라 시네프는 청년 영화인의 작품을 소개하는 경쟁 부문으로 올해는 전 세계 646개 영화학교에서 2679편의 작품이 출품되었다.

‘첫여름’은 허 감독이 외할머니에게서 영감을



허가영 감독이 5월 22일 프랑스 칸의 뷔뉴엘 극장에서 열린 칸 국제영화제 라 시네프 부문 시상식에서 1등상을 받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받아 만든 작품으로 자기 욕망에 솔직한 노년 여성의 모습을 보여준다. 경영학도였던 그는 한국영화아카데미에 입학해 영화를 정식으로 공부한 지 1년 반도 안 된 시점에서 받은 상이어서 영화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허 감독은 “칸 영화제 수상에 덕에 희망과 안도감을 얻었으며, 앞으로도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사회의 시선 변화를 이끌고 싶다고 했다.



이무원
연세대 경영대
교수



이형일
기재부 1차관



김영철
영신회계법인
대표

- 서중회 15기 **이무원** 연세대 경영대 교수가 12월 12일 ‘연세상경인의 밤 2025’ 송년 행사에서 ‘자랑스런 연세상경인상’ (학술문화 부문)을 수상했다.
- 서중회 17기 **이형일** 통계청장이 6월 기획재정부 1차관에 임명되었다.
- 서중회 24기 **김영철** 현대회계법인 전무가 5월 영신회계법인을 설립,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2026년 방일영장학회 졸업생들 진로

- 이지원(47기) 삼일회계법인 입사
- 류동호(47기) 외교부 다자경제기구과 근무
- 최민석(48기) EY한영회계법인 입사
- 정다희(48기) Kearney Korea 입사
- 전호연(48기) 서울대 로스쿨 진학
- 장민선(49기) SK이노베이션 입사
- 박세은(50기) 성균관대 로스쿨 진학
- 주민정(50기) (주)유씨케이파트너스 입사



방일영장학회 장학증서 · 졸업기념패 수여식

신입장학생 27명, 졸업장학생 23명
올해부터 자연과학 전공 학생도 선발해

방일영장학회 2025년도 신규 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과 졸업기념패 수여식이 2월 27일 조선일보사 편집동 6층 회의실에서 있었다.

이날 제52기 학부장학생 18명과 제15기 탈북장학생 9명이 장학증서를 받아 지금까지 총 822명의 방일영장학생이 혜택을 받게 되었다.

이번 52기부터는 오랫동안 유지된 인문·사회계열만의 선발 방식에서 벗어나 처음으로 자연과학 전공 학생들이 선발됐다.

자연과학이 첨단 과학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학문임에도 타 학부에 비해 장학금 기호가 상대적으로 적은 현실을 감안해 내린 결정이다.

변용식 방일영문화재단 이사장은 격려사에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방일영장학금은 학비와 생활비를 주는



풀 스칼라십”이라며 장학회 설립자인 고 방일영 선생의 말씀을 인용했다. “모든 어려움은 나에게 모두 털어버리고 오늘 이 시간부터는 면학에만 전념하여 국가와 사회가 요구하는 큰 인물이 되어주기 바란다.” 방일영문화재단이 생활보조금까지 지급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수여식에는 방상훈 회장, 방준오 사장, 홍준호 발행인, 조정훈 총무국장이 참석했다. 방일영장학생 졸업생 모임인 ‘서중회’ 선배인 여상규(1기) 전 국회의원, 현종찬(2기) 변호사, 최성환(4기) 우리기술투자 감사, 정익상(17기) 안전회

계법인 법무실장, 김영철(24기, 서중회 총무) 영신회계법인 대표 등이 참석해 후배들을 격려했다. 수여식 후에는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재학생들과 합류해 신입생 환영회와 졸업생 환송회가 흥겹게 이어졌다.



2025년 서중회 정기총회

2025년도 서중회 정기총회가 3월 19일 오후 7시 서울 광화문 코리애나호텔 다이아몬드홀에서 열렸다. 그간 코로나 팬데믹으로 중단됐던 총회가 2020년 이후 5년 만에 재개된 것이다.

이 자리에는 서중회원 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조선일보 방상훈 회장과 방준오 사장, 홍준호 발행인, 박두식 전무, 박종세 경영기획본부장, 그리고 변용식 재단 이사장 등이 내빈으로 참석했다.

재단 이사인 방준오 조선일보 사장은 인사말에서 “올해부터 방일영장학회가 인문·사회계열만의 선발 방식에서 벗어나 자연과학 계열 학생도 선발해 더욱 다양한 인재들을 포용하고 육성할 수 있게 되었다”고 했고 “조선일보가 불편부당의 자세로 정론지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서중회원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정익상 서중회장은 “코로나로 오랫동안 모임을 갖지 못했는데 이렇게 반가운 얼굴들을 보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는 매년 3월에 정기적인 모임을 갖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영철 서중회 총무의 재치있는 사회로 진행된 이번 총회는 서중회원들의 동정 소개에 이어 하이라이트인 기수별 회원 소개가 있었다. 금년은 25기 이하 막내 기수까지의 회원들이 모두 나와서 자기소개와 근황 등으로 흥겨운 1부 순서가 마무리되었다.

곧이어 2부로 진행된 서중회 정기총회에서는 18기 이동혁 회원이 신임 회장에 선임됐다. 이동혁 신임회장은 “과분하게도 명예로운 회장직을 맡게 되어 영광”이라며 “활기차고 즐거운, 회원간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모임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임 감사에는 31기 김윤주 회원이 선임되었다.



〈편집자 주-이 글은 8월27일 서울 세종호텔에서 열린 서중포럼에서 이선민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객원연구원이 한 주제강연 ‘새로운 한국근현대사 찾기’ 를 요약한 것이다.〉

어느 60대 신진 역사학도의 ‘새로운 한국 근현대사’ 찾기

이선민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객원연구원, 서중회 8기)



국사학계에서 오랫동안 표준으로 통용되고 있는 한국 근현대사 서사는 ‘자생적·자주적 근대화의 좌절’ (조선 후기~개항기), ‘일본의 침략·수탈과 저항’ (일제강점기), ‘분단과 통일 지향’ (광복 후)이다. 일국사(一國史)적인 내재적 발전론에 입각하여 한국 근현대사의 기본과제를 ‘반제(反帝)[외

세·침략], 반봉건(反封建)’으로 설정하는 데서 출발한 이런 서사는 이해하기 쉽고, 한국인의 감성에 부합하는 것이 강점이다.

하지만 서사가 분절적(分節的)이어서 학문적으로 일관성이 떨어지고,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아서 현재의 대한민국을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약점을 지니고 있다. 이에 따라 1990년대부터 국내외에서 다양한 비판과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제는 한국 근현대사를 세계사적 차원에서 진행된 서구적 근대의 지구적 확산에 편입

된 뒤에 근대국가 수립으로 나아가는 과정으로 새롭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길게는 개항 이후, 짧게는 20세기의 한국사는 외세의 강한 영향을 받으면서도 자력으로 근대국가를 만들어간 ‘한국혁명’ 과정이었다. 그리고 그 비밀을 푸는 두 개의 열쇠는 사회·정치 운동으로서의 ‘자주적 근대화’와 이념적 동력으로서의 ‘전진(前進) 민족주의’이다.

한국의 근대화를 이해하는 시각은 ‘자생적 근대화론’ (1960~70년대), ‘식민지 근대화론’ (1980~90년대), ‘자주적 근대화론’ (2000년대~현재)으로 변화해 왔다. ‘자생적 근대화론’은 한국도 서구 국가들과 비슷하게 조선 후기에 농업과 상공업에서 근대로의 전환이 시작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렇게 자생적으로 성장했던 ‘자본주의 맹아(萌芽)’가 일본의 침략으로 잘려나갔다는 것이다.

‘식민지 근대화론’은 조선 후기의 ‘자본주의 맹아’ 발생을 부정했다. 한국의 근대화는 개항 이후 시작됐고, 일본의 식민지 지배 아래 근대사회가 본격 이식됐다는 것이다. ‘자주적 근대화론’은 한국의 근대화가 전근대에 축적된 ‘사회적 역량’을 바탕으로 개항 이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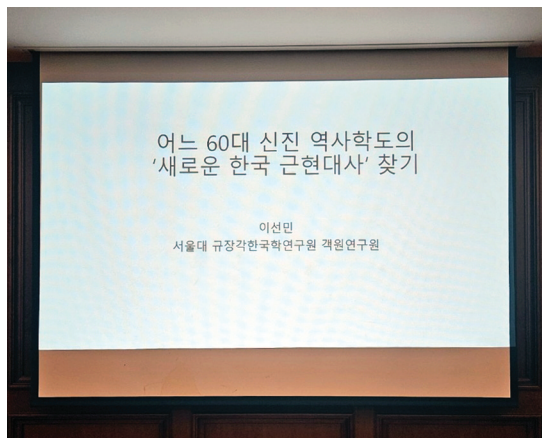
서구 근대문명을 받아들이는 과정으로 본다. 그리고 그 과정은 타율적 이식이라기보다 주체적 수용이었다는 것이다. 32년 3개월 근무한 조선일보를 정년 퇴임하고 학교로 돌아온 60대 신진 역사학도로서 나의 목표는 경제사를 중심으로 전개돼 온 근대화론을 정치사상으로 보강해서 ‘자주적 근대화론 2.0’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한국의 근대 민족주의는 외세, 특히 일본에 대한 저항을 핵심으로 한다는 것이 통념이다. 그런데 ‘전진 민족주의’론은 한국의 근대 민족주의가 ‘반일(反日) 저항 민족주의’를 넘어선다고 본다. 독립뿐 아니라 통합과 자유를 지향하는 근대 민족주의의 일반적 성격이 한국에도 적용된다는 것이다.

한국 국제정치학의 토대를 마련한 이용희는 일찍이 1960년대에 “근대국가를 수립한 뒤에는 외세의 침략과 식민지화라는 민족사의 위기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나타났던 저항 일변도의 민족주의에서 벗어나 근대화와 민주화라는 비전을 강조할 필요가 있고, 이것이 ‘전진 민족주의’”라고 설파했다.

새로운 한국 근현대사 서사는 외세에 대한 저항은 강했지만 전통체제와 사상을 고수한 위정척사파나 부국강병에 집중하면서 민권에 소홀했던 왕실과 개화파는 근대국가 수립의 주역이 되기 어려웠다고 본다. 한국 근대 민족주의는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가 씨를 뿌렸고, 고종의 강제양위 이후 향반·평민·중인 등 피지배층에서 나온 소장·중견 민족운동가들이 비밀결사로 조직한 신민회가 국민주권과 독립전쟁의 이념을 제시하면서 형성됐다.

이렇게 시작된 근대국가 수립 운동은 일본이 한국을 강제병합한 뒤에도 계속돼 3·1운



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일본의 식민지에서 벗어난 다음 국민국가 수립과 국민경제 형성에 성공함으로써 결정적인 순간을 맞이했다.

이후 대한민국은 ‘건국→호국→산업화→민주화’를 거치면서 경제는 비약적으로 발전한 반면에 주체성은 다소 약해진 사회로 변모했다. 그래서 전통과 서구 문명, 자유와 평등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었던 제헌헌법 정신으로 돌아가자는 주장도 나온다. 과연 그것이 바람직하고 가능한가는 우리에게 던져진 질문이다.

4월*

트럼프 머리 위에 올라서는 법

말씀해 주신 분 송의달 <서울시립대 초빙교수>



송의달 교수님 강연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중심으로, 미국 정치·언론 구조와 국제 정세를 입체적으로 조망하는 매우 밀도 높은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강연은 단순한 인물 해석을 넘어 미국이 어떻게 세계 패권을 유지해왔고, 트럼프라는 인물이 그 중심에서 어떤 방식으로 기존 질서를 흔들고 재편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미국이 다시 트럼프를 선택한 이유

2025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했다. 두 차례의 탄핵, 형사 기소, 심지어 암살 위협에도 불구하고 다시 미국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았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정치적 복귀로만 해석될 수 없으며, 오늘날 미국 사회 내부의 피로감, 가치관의 분열, 그리고 기성 질서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 제기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송 교수는 이번 강연에서 트럼프에 대한 한국 사회의 인식이 지나치게 감정적이며, 언론 보도 또

한 미국 엘리트 미디어의 시각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트럼프를 단순한 포퓰리스트나 반지성주의자로 낙인찍는 것보다 그를 반복적으로 등장시키는 미국 정치 시스템의 구조적 배경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인상 깊었다.

전략적 과장과 이미지 정치의 정점

트럼프는 대중적 선동가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신에 대한 담론을 설계하고 지배하는 데 능한 전략가라는 점에서 '진실된 과장(truthful hyperbole)'의 화신으로 설명하셨다. 이 표현은 트럼프가 허위 정보를 의도적으로 생산한다기보다 언론의 반응을 고려한 과장된 언술로써 여론의 흐름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전환시키는 방식을 일컫는다. 그의 화법은 선동이라기보다는 '언론 소비의 기획'에 가깝고, 이는 곧 미국 주류 미디어에 대한 반감과 맞물려 유권자들의 정서적 지지를 얻는 메커니즘으로 작동한다. 송 교수께서는 이와 같은 전략이 일시적 효과에 그치지 않고 트럼프가 살아 있는 '정치 브랜드'로 기능하는 이유라고 분석하셨다.

미국 외교 패러다임 전환과 한국의 현실

트럼프의 '아메리카 퍼스트'는 고립주의적 수사에 머물지 않고,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자체를 재편하려는 시도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는 동맹국에 무조건적인 보호를 제공하는 대신 분담과 책임을 요구하며 미국의 자원과 국익을 보다 선별적으로 활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송 교수는 한국 역시 더 이상 ‘양다리 외교’를 지속할 수 없는 구조에 놓이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즉, 트럼프는 중간 지대를 용납하지 않고, 한국이 선택을 유예할수록 전략적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외교적 주체로서의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할 시점이라고 경고했다.

반중 연합 속 전략적 기회 포착

트럼프의 반중 노선은 단기적으로 한국에 긴장을 유발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산업과 외교 전반에 걸쳐 전략적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송 교수는 반도체, 조선, 에너지 등 핵심 분야에서 한국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짚으며 미국 주도의 기술·산업 블록 내에서 한국이 독립적인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다. 중국의 구조적 보조금과 국영 자본주의에 밀려 경쟁력을 위협받는 현실에서 한국이 자유민주주의 진영과의 협력을 통해 제조업 강국으로 재도약할 수 있

다는 진단은 현실적 해법으로 다가왔다.

트럼프를 해석하는 방식이 곧 우리의 전략이다

강연 말미에 송 교수께서 강조한 “트럼프의 머리 위에 올라서는 대한민국이 돼야 한다”는 말은 한국 외교가 처한 현실과 방향성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단순히 그를 지지하거나 비판하는 차원을 넘어 트럼프의 전략을 전략적으로 해석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번 강연을 통해 느낀 가장 중요한 교훈은 외교와 정치의 영역에서는 감정보다 정세를 읽는 능력이 더 중요하다는 점이다. 트럼프는 여전히 영향력 있는 인물로 세계를 지배하고 있으며, 한국은 이 상황을 감정이 아닌 이성으로 직면해야 한다. 감정적 반응 대신 구조적 분석과 주체적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정리 **장준우**(연세대 경영학과 2학년 · 장학회 52기)

5월*

뮤지컬 「지킬앤하이드」 관람



이번 5월 월례회는 장학회 역사상 처음으로 강연이 아니라 뮤지컬 관람으로 진행됐다. 그것도 세계적으로 이름난 '지킬앤하이드'였다. 지하철과 연결된 블루스퀘어 입구에서 회원들과 반갑게 인사하고 극장으로 들어섰다. 워낙 유명한 공연이라서 로비는 인산인해였다. 설렘과 기대에 찬 관객으로 가득한 가운데 막이 올랐다.

원작 소설 '지킬 박사와 하이드'의 분위기에 맞춘 각

양각색의 무대 장치와 연출이 2시간가량의 긴 이야기를 지루하지 않게 해주었다. 지킬 박사의 약품으로 가득 찬 연구실, 실감 나는 천둥소리와 무대에서 뿜어져 나오는 불길에 숨 돌릴 틈 없이 극에 몰입하였다. 병원 내부, 연회장, 지킬의 연구실과 길거리를 오가는 장면 전환이 인상적이었다.

의상과 목소리를 바꿔가며 지킬과 하이드의 1인 2역을 연기하는 주연 배우(신성록)의 연기력 덕분에 몰입

감이 컸다. 단정히 묶은 머리와 정장 차림은 지킬, 머리를 풀어 헤치고 털가죽으로 만든 옷차림은 하이드였다. 지킬과 하이드 둘을 오가는 배우의 열연이 대단했다. 특히 뮤지컬 넘버 ‘대결’을 부를 때 조명 전환에 맞춰 지킬과 하이드를 넘나드는 배우의 모습은 가장 인상적이었다.

뮤지컬 ‘지킬앤하이드’는 가장 유명한 넘버인 ‘지금 이 순간’ 이외에도 강렬한 인상을 주는 노래가 여럿 삽입되어 한정된 시간 안에 인물들의 감정과 생각을 충실히 표현한다. 주연 배우들의 가벼운 애드리브와 유쾌한 농담으로 무거운 분위기를 바꿔줘 지루할 틈 없이 즐길 수 있었다.

극은 지킬로 대표되는 이성과 선, 하이드로 대표되는 본능과 악을 여러 차례 대비해 보여준다. 막이 내린 후에도 ‘인간이란 존재는 무엇인가?’, ‘인간의 본성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를 곱씹어보게 한다. 인간의 악한 본성을 분리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던 지킬 박사는 끝내 하이드를 없애지 못한 채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인간이란 결코 선과 악으로 분리할 수 없는 복잡한 존재임을 보여준다. 그와 동시에 권선징악의 메시지도 담고 있다.

막이 내려간 후에도 여운이 오래 남는 공연이었다. 다음 월례회는 어떤 활동이 준비되어 있을지? 욕심이 겹치지만 이런 공연 관람 기회가 또 있기를 기대해 본다.

정리 서수연<연세대 천문우주학과 2학년 · 장학회52기>



6월*

조선이 만난 아인슈타인

말씀해 주신분 민태기 <에스엔에이치 연구소장>



민태기 소장님은 ‘조선이 만난 아인슈타인’이라는 낯설면서도 흥미로운 제목의 강연을 시작하셨다. 기계공학을 연구하며 과학 이론을 전문적으로 탐구하면서 인문학적 조예도 깊은 분이였다.

민 소장은 우선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를 틀어주셨다. 영화의 한 장면에서 동아일보를 보여줬는데, 그 신문에는 “국력은 과학력”이라는 제목이 있었다. 소장님은 그 제목의 사실이 궁금해 오랫동안 조선의 과학을 연구했다고 한다. 이윽고 소장님은 역사 속 4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시대를 앞선 선구자, 서재필

첫 번째 인물은 서재필이다. 그는 갑신정변이 사흘천하로 실패하자 미국으로 망명했다. 정변 실패로 가족이 다 처형당한다. 하지만 그는 의대에 진학한다. 서재필 부부의 사진은 쿨리 부부를 연상시킨다. 자전거는 1895년에 최초로 대중화되었다. 서재필은 조선에서 최초로 자전거를 탄 사람이고, 서재필 소개로 자전거를 두 번째로 탄 사람은 윤치호이다.

윤치호 일기에도 흥미로운 일화가 나오는데, 윈트겐의 첫 x선 사진 이후 3개월 만에 그는 x선을 자신의 일기에도 기록한다. 그만큼 우리 조상들은 과학에 관심이 많으셨다. 서재필은 이후 만삭의 부인과 함께 조선에 방문한다. 태극기에 대한 경례, 유한양행의 버드나무 로고... 여기에도 서재필 박사의 영향이 깊게 묻어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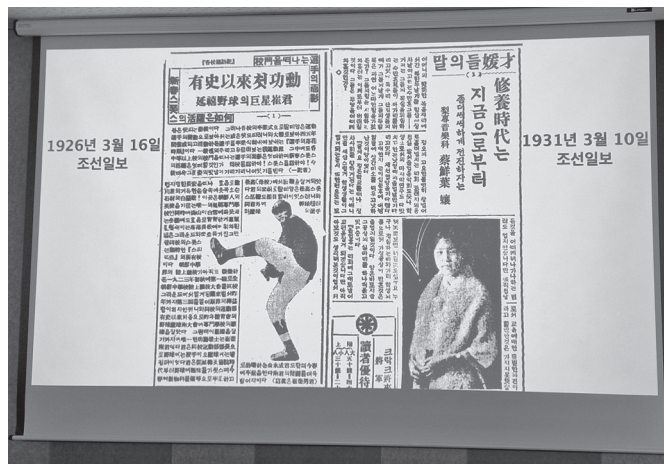
귀국한 서재필은 독립신문을 창간한다. 그는 신문을 통해 대중에게 개화와 계몽사상을 전파했다. 배재학당도 설립해 청년들의 교육에 힘쓴다. 훗날 대통령이 된 이승만 박사도 배재학당에서 공부했다. 하지만 서재필은 왕정에 대해 급진적인 발언을 해 다시 추방당한다.

서재필의 삶에는 조선의 선비들과 학자들의 정신이 얽혀 있다. 이를 토대로 19세기 말 조선의 학자들이 서양의 급변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새로운 기술에도 관심을 가졌음을 알 수 있다.

아인슈타인을 이해한 천재, 황진남

두 번째 인물은 황진남이다. 그는 최초로 아인슈타인을 만난 조선인이다. 그는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캠퍼스에 합격한 수재였지만, 3·1운동에 고무되어 안창호 선생과 함께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들어간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미국 한인 비행대를 비롯해 여러 무장 부대를 운영 중이었는데 여기에도 황진남의 영향이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모인 한인들은 나라를 잃은 서러움을 극복하기 위해 돈을 모아 비행기를 구매했다.

황진남은 1922년 상대성이론에 대해 완벽히 이해했



다. 1922년 아인슈타인이 도쿄에 방문하자 그의 강연을 들은 유학생들이 1년 뒤 1923년에 전국을 순회하며 상대성이론 강연회를 개최했다. 이 강연은 매년 몇백 명씩 사람이 모일 정도로 매우 성공적이었다. 상대성이론에 대한 한반도 민중의 열기와 의지는 7월 더위처럼 뜨거웠다. 춘원 이광수 조차 상대성이론에 대한 논문을 발표했다. 대중잡지 '동광'에는 원자력 발전과 핵분열에 대한 글이 실렸다. 그뿐만 아니라 칸트와 베르그송을 비롯해 철학과 사회학의 명저들도 소개되었다. 이로써 우리는 한반도의 지식인들이 물리학, 수학, 철학, 사회학에 열정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과학을 대중에 소개한 물리학자, 최규남

세 번째 인물은 최규남이다. 최규남은 야구선수로도 활동한, 문무를 겸비한 빼어난 수재였다. 최 박사는 미국에서 물리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최규남 박사의 처남은 민족운동가이자 음악가 채동선이었다. 그는 열렬한 민족의식으로 한국의 독립을 위해 노력했다. 최 박사는 조선일보에 과학 사설을 투고했는데 이 사설에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을 넘어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 플랑크 상수와 같이 양자역학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최 박사는 디랙, 플랑크, 드 브로이와 같은, 시대를 이끈 물리학자들의 업적을 일반 대중한테 소개했다. 그는 젊은 인재들이 과학을 공부해야 함을 강조했다.

빈곤을 극복하기 위해 연구한 거장, 우장춘

마지막은 우장춘이다. 우장춘 박사는 이태규 박사, 리승기 박사와 깊은 친분을 유지했다. 도모나가 신이치로, 유가와 히데키를 비롯한 노벨상 수상자인 일본인 학자들과도 교류했다. 우장춘 박사의 박사 논문은 너무나 뛰어나 일본인 학자들 사이에서도 화제가 되었다.

이태규 박사, 리승기 박사는 광복 이후 일본에서의 모든 작위와 명망을 뒤로 하고 경성대학으로 갔다. 하지만 경성대학에서 내분이 발생해 이임학 박사, 리승기 박사 등은 월북했고, 경성대학은 반쪽인 채로 유지하게 되었다. 북으로 간 과학자들은 김일성 종합대학을 만들었다. 우장춘 박사는 6·25전쟁에도 불구하고 일본으로 돌아가지 않고, 휴가철에도 모두의 예상과 다르게 다시 부산에 돌아왔다. 연구에 전념하던 우장춘 박사는 “우의 삼각형”이라는 대업적을 남겼다.

우장춘 박사는 빈곤 해결에도 헌신해 김치와 배추를 연구했다. 그는 한국 근대농업의 아버지, 김치의 은인이라 불린다. 우장춘 박사 덕분에 우리는 현재 김치를 많이 먹을 수 있는 것이다. 우장춘 박사와 그의 사위 교토 상가 FC의 구단주 이나모리 회장, 그리고 이나모리 회장이 영입한 박지성까지... 소장님은 대한민국의 영웅 박지성과 대한민국의 또 다른 영웅 우장춘의 인연에 대해 알려주셨다.

나라를 잃고, 주권을 빼앗겨 고향마저 잃은 민중한테 힘이 되기 위해 수많은 과학자는 과학을 연구했다. 지금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과학을 연구해 나라에 보답하려고 한 많은 분들의 희생과 노력 덕분이었다.

정리 **신현서**(서울대 경제학부 2학년 · 장학회52기)

9월*

뇌과학과 인공지능이 바꿀 인류의 미래

말씀해 주신 분 **임창환** <한양대 전기생체공학부 교수>



인간의 지능이 뇌의 신경세포 연결망에서 기원한 것처럼 컴퓨터의 인공지능은 전기적 소자들의 연결망에서 발현된다. 현대 과학기술의 최전선을 달리는 두 분야는 겉보기보다 공통점이 많지만 양쪽 모두에서 전문 지식과 연구 경험을 가진 분을 접할 기회는 흔치 않다. 9월 월례회에서는 한양대학교 전기생체공학부 임창환 교수께서 "인간, 뇌 그리고 인공지능"이라는 주제로 강연하면서 뇌를 모방하는 인공지능, 그리고 두 분야의 융합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비행기와 인공지능의 공통점?

강연을 연 첫 번째 이야기는 인공지능이 아닌, 비행기 개발의 역사였다. 교수님께서서는 라이트 형제가 새를 모방하여 비행기 날개를 제작했던 것처럼 초창기 인공지능 역시 뇌의 신경망 구조를 모방함으로써 만들어졌다고 하셨다. 신경세포가 여러 층을 이루어 연결되는 방식, 이른바 다층 신경망은 초기 인공지능의 성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다. 물론 실제 인공 신경망은 선형 대수의 연어로 구현된 인위적인 구조로, 인간 뇌의 신경세포 형태와는 거리가 멀다. 그러나 기존 방식의 인공지능에 대해 낙관적 시각과 회의적 시각이 공존하는 가운데 인간의 뇌를 모방함으로써 아이디어를 얻고자

하는 연구가 주목받고 있다.

인공지능의 발전에 회의적인 사람들은 지금의 방식으로는 '범용 인공지능(AGI)'의 개발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더딜 것이라고 주장한다. 범용 인공지능이란 특정 작업에 한정된 '약한 인공지능'과 달리 인간이 접근할 수 있는 모든 지적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말한다.

세상에서 가장 효율적인 컴퓨터, '뇌'

인간의 뇌는 현재까지 개발된 어떤 컴퓨터보다 에너지 효율이 높은 계산 장치이다. 우리 뇌가 평균적으로 사용하는 에너지는 20와트 정도인데, 이는 CPU보다 수 배에서 수십 배 낮은 수치이며, 컴퓨터의 제반 부품들이 사용하는 에너지까지 합하면 그 차이는 더욱 벌어진다. 연구자들은 이렇게 높은 효율을 가능케 하는 요인 중 하나가 뇌의 '작은 세상 네트워크' 전략이라는 점을 발견했다. 마치 항공망에서 몇 개의 허브 공항을 중심으로 작은 공항들이 연결된 것처럼 인간 뇌의 신경망 또한 허브 뉴런을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다. 인공지능 연구자들은 이를 곧바로 딥러닝 기반 알고리즘에 적용했고, 기존보다 2.1배 높은 효율을 보여주었다.

한편 다른 그룹에서는 우리 눈의 시각 인지 과정에 착안하여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시신경은 장소에 대한 정보(Where)와 대상에 대한 정보(What)의 경로를 분리하여 전달한다. 비슷한 방식으로 정보 전달 경로를 두 갈래로 나누어 인공 신경망을 구성한 결과, 소비 전력을 최대 1/10까지 절약했다는 보고가 있었다. 이처럼 생체 구조를 모방하는 아이디어는 여전히 정보 기술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우리 뇌가 가지는 독특한 특징은 에너지 효율뿐만이 아니다. 신경망에서 사용하지 않는 신경 세포 또는 연



결부를 제거하고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 내는 특성을 신경 가소성이라 하는데, 이 덕분에 우리 뇌는 새로운 학습이나 경험에 반응하고, 주변 환경에 적응하며 성장할 수 있다.

오늘날 사용되는 인공 신경망도 학습시킬 때마다 가중치가 조절되는 방식은 신경 가소성과 유사하지만, 뇌의 연결망 재구성 방법인 이른바 ‘시냅스 가지치기’는 훨씬 더 유연하고 복잡한 과정임이 밝혀졌다. 신경 세포 사이 연결부를 시냅스라 부르는데, 사람의 뇌에는 평균 100조 개 이상의 시냅스가 존재한다. 이들이 어떻게 시시각각 변화하면서도 뇌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지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다.

마인드 업로딩의 꿈: 자연지능과 인공지능의 융합

사람의 뇌를 모방해 인공지능을 개량할 수 있다면, 나아가 뇌의 신경망 전체를 전기 신호들의 집합으로 재현할 수 있다는 상상도 해볼 수 있다. 이는 자연스럽게 SF 소설의 단골 주제 중 하나인 마인드 업로딩으로 귀결된다. 소설 속이나 먼 미래에서만 가능한 기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놀랍게도 사람보다 단순한 생명체에 대해서는 이러한 작업이 실제로 성공한 사례가 존

재한다.

예쁜꼬마선충은 신경세포의 개수가 502개에 불과하여 현재까지 신경망의 연결 구조가 정확하게 알려진 유일한 생명체이다. 인공지능 연구자들은 뇌과학자들과의 협업을 통해 예쁜꼬마선충의 신경망을 그대로 시뮬레이션하였고, 개체의 실제 움직임을 컴퓨터상에서 구현하는 데까지 성공하였다. 마인드 업로딩이 그저 허무맹랑한 이야기는 아닌 셈이다.

앞서 말했듯 시냅스가 100조 개에 달하는 인간 뇌를 재현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작업이다. 그러나 교수님께서서는 일론 머스크의 회사 뉴럴링크를 비롯하여 비슷한 목표를 안고 연구에 정진하는 곳이 여럿 있다고 말씀해 주셨다. 최근에는 칩을 삽입하여 보조 인공 뇌로 사용하는 기술로 알츠하이머 환자의 뇌 기능 향상에 도움을 주었다는 보고도 있었다고 한다. 강연을 마무리하면서 인용한 MIT의 Edward Boyden 교수의 논평이 기억에 남는다. “인간 뇌와 반도체 칩이 전기적, 기계적, 화학적으로 연결되도록 만드는 것이 21세기 뇌 연구의 주요 목표가 될 것이다”

정리 정민성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2학년 · 장학회 52기>

10월*

역사의 동력은 지성과 교류

말씀해 주신 분 **박종인** <조선일보 선임기자>

공동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나아가서 개개인이 국가를 비롯한 공동체 전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박종인 조선일보 선임 기자는 유럽, 조선, 일본의 사례를 들어 지성과 교류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유럽의 역사를 바꾼 금속활자는 15세기에 구텐베르크가 고안해냈다. 구텐베르크는 상인의 관점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책을 인쇄하는 방법을 고민했고, 포도를 짜 와인을 만드는 착즙기에서 영감을 받아 금속활자를 발명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금속활자는 유럽의 상업을 발전시켰을 뿐만 아니라 문화와 지식의 교류를 기하급수적으로 활성화하였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전에 손으로 하나하나 작성하던 면죄부를 대량으로 찍어 내기 시작했고, 그에 맞선 마틴 루터의 유명한 95개조 반박문 역시 구텐베르크의 인쇄 기술 덕분에 널리 유포되었다. 유럽의 정보 개혁은 종교 개혁으로 이어졌고, 총체적으로는 다양한 이념이 서로 충돌하는 경쟁과 성장의 장을 열었다.



같은 시기에 동유럽에서는 비잔틴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폴리스가 오스만 제국에 의해 함락되었다. 동유럽의 관점에서는 한 제국의 멸망을 의미하는 사건이었지만 서유럽 상인들에게는 기회였다. 오스만 제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에서 때돈을 벌 기대에 찬 서유럽 서점들은 동쪽으로 진출을 시도했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하고 말았다. 오스만 제국의 필경사들 때문이었다. 서적을 손으로 직접 복사하는 일을 하던 8만 명의 필경사들은 금속활자 기술의 효율과 품질에 경악했다. 필경사들은 인쇄소를 상대로 집중적인 로비 활동을 벌여 그들을 오스만 제국의 시장에서 퇴출시킨다. 그 결과 오스만 제국은 학문적으로 도태되고 만다. 서유럽이 이슬람 문명의 지식을 가져와 활자 기술을 통해 확산하여 르네상스 시대를 여는 동안에 필경사에 의존한 오스만 제국은 기존의 지식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채 서유럽과의 경쟁에서 밀리게 된다.

오스만 제국과 마찬가지로 16세기 조선에서도 터무니없는 이유로 서점의 발전이 지연되었다. 1529년 중종 때 문신 어득강은 읽히지 않은 채 유생들의 집에 쌓이고만 있는 서적들을 유통하기 위해 서점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한다. 정승들은 책을 필요로 하지 않는 과부들은 이미 서로 책을 사고파는 것에 익숙한데, 이 과정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해만 가져올 뿐이라며 거절한다. 서점 설립은 여러 차례 무산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지식욕은 없어지지 않았다.

민간에서는 조잡하게나마 방각본이라 불리는 소설책을 간행하기 시작했고, 또 책의 내용을 암기해서 사람들에게 외워주는 전기수라는 직업이 등장했다. 그러나 여전히 지도층은 대중의 수요를 외면했고, 국가가 책의 생산과 유통, 소유를 독점하는 구조가 이어졌다. 그 때



문에 조선 내적으로도, 외적으로도 지식의 교류가 더더
질 수밖에 없었다.

반면에 일본의 데지마 섬에서는 일본과 유럽 간의 지
식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정확히는 일본이 데지마
섬을 드나드는 네덜란드 상인들의 물품을 관찰하면서
그들의 학문을 흡수했다. 일본 지도층은 네덜란드에서
들여온 해부학 교과서를 일본어로 번역하여 전파하고,
또 조선의 동의보감을 들여오기도 하면서 지식을 확장
했다. 1774년 일본 학자들이 네덜란드의 서적을 번역
한 ‘해체신서’는 지금 사용되는 동맥, 정맥, 갑상선 등
의 각종 의학용어의 기원이 되었다. 이처럼 일본은 교
류를 통해 중국, 유럽 등의 강점을 파악하고, 또 그 강
점을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고자 노력했다. 근대 이후
일본이 폭발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문명
의 지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했기 때문이었다.

한 세기 후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통해 근대화에 성
공한다. 대국으로 여겨지던 중국이 아편전쟁에서 영국
에 패배하자 일본은 영국을 비롯한 서구에 사절단을 보

내 그들이 승승장구하는 원인을 파악하고, 데지마의 상
인들을 관찰하며 그랬던 것처럼 그들의 강점을 흡수했
다. 당시 일본의 태도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이와쿠라 사절단이다. 메이지 유신 직후 유럽과 미국을
들른 이와쿠라 사절단은 처음 일본식 도포를 입고 다
녔으나 한 달 만에 양복을 입고 사진을 찍었다. 자국 생
활양식을 고수하기보다 다른 강대국들의 문화를 받아
들인 것이다. 같은 시기 조선도 아편전쟁 당시 중국에
조사단을 파견했다. 5년 뒤 돌아온 조사단은 “아무 일
도 없었다”고 보고했다. 일본이 성장하고 제국이 되어
한국을 비롯한 인접한 국가들을 지배할 수 있었던 동
력은 서구 강대국을 연구하고, 그들이 가진 유용한 지
식을 적극적으로 빌려오는 능력에 있다.

박 기자는 서유럽과 동유럽, 그리고 일본과 한국을
비교함으로써 역사가 말해주는 진실이 있다고 평가하
신다. 지식과 지성의 교류 없이는 공동체가 발전할 수
없고, 국가의 발전을 이끌어내는 것은 그 교류의 중요
성을 일찍이 간파한 인재들이라는 사실이다.

정리 **윤재인** <서울대 영어영문학과 2년 · 장학회 52기>

11월*

미술관에 간 바이올리니스트

말씀해 주신 분 이수민 <바이올리니스트>

선선한 가을 바람이 불던 11월 6일, “그림 그리는 바이올리니스트” 이수민 님께서 월례회에서 바이올린 연주를 곁들인 강연을 들려줬다. 세계적으로 화제가 된 넷플릭스의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 속 'Golden'의 가사처럼 고통과 시련을 딛고 다시 일어난 클래식 음악 작곡가들을 주제로 장학생들에게 친숙한 소재로 클래식의 매력까지 알려주셨다.

비발디 '사계' 中 '가을'

작곡가이기 전에 신부였던 안토니오 비발디는 눈앞의 풍경과 이미지를 음악으로 옮긴 최초의 작곡가로 평가 받는다. 그의 대표곡인 <사계>는 바이올린 솔리스트와 소규모 현악 앙상블의 협연으로 연주되는 콘체르토로, 악보에 장면에 대한 묘사가 이탈리아어로 쓰여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수민 바이올리니스트가 직접 연주한 3악장 '가을'은 가을의 사냥 장면을 멜로디로 표현했다. 새벽이 되자 사냥개를 앞세운 사냥꾼들은 빨피리와 총을 들고 숲으로 들어가고, 이를 본 동물들이 놀라 도망가자 사냥꾼과 개들이 그 뒤를 쫓는 모습을 묘사했다.

강연자는 이 곡을 들으며 직접 그린 그림도 보여주면서 연주했다. 특히 활을 과감하게 긁는 정확한 보잉으로 명랑하고 씩씩한 사운드가 완성됐다. 비발디가 표현하고자 했던 가을의 풍성한 이미지와 활기찬 사냥의 모습이 눈앞에 그려지는 듯하였다.

쇼팽의 '녹턴'

폴란드 출생의 프레데리크 쇼팽은 파리로 이주한 후 폴란드 망명객들의 도움을 받아 사교계에 입성하였다.

귀족들과 어울리며 부유한 환경에서 본인의 음악 세계를 펼칠 수 있었고, 리스트 등의 음악가와도 친밀한 관계를 맺었다.

쇼팽의 대표곡은 녹턴 Op.9, No.2로, 대중에게 가장 친숙한 클래식 음악 중 하나이다. 녹턴은 피아노를 위해 쓰인 곡이지만 마치 성악가의 아리아처럼 왼손은 단순 반주를, 오른손은 성악곡과도 같은 아름다운 멜로디를 연주하게 된다. 이 곡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흠쳐온 시간'이라는 뜻의 템포 루바토이다. 음악 안에서 '밀당'을 하듯 박자를 늘리고 당기며 연주하는 것이다.

강연자는 이 녹턴을 바이올린과 피아노가 함께 연주하도록 편곡된 버전을 들려줬다. 피아노가 왼손 역할로 반주를 하고, 바이올린이 오른손 역할을 맡아 멜로디를 연주했다. 꾸밈음과 트릴을 통해 템포 루바토를 살리고, 교차되는 포르테와 피아노로 이를 완성시키는 듯했다. 카덴차(cadenza)처럼 바이올린이 마음껏 감정을 실어 연주하는 클라이맥스를 넘어 반복되는 코드로 잔잔하게 마무리했다. 명곡으로 평가 받는 녹턴의 감동을 온전히 느낄 수 있었다.

베토벤의 생애: “고통에서 환희로”

모두에게 위대한 음악가로 인정받는 베토벤 인생의 모토이자 음악관은 “고통에서 환희로”였다. 극심한 가난 속에서 태어나고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 밑에서 자란 베토벤은 짧은 교육 기간과 악화되는 건강에도 불구하고 이를 극복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했다.

그는 고전주의의 전통을 따르면서도 자기의 문학적

‘헝가리안 무곡’ 5번은 춤곡의 정수를 보여주는 듯했다.
활을 현에 튕기듯 연주하는 기법인 스피카토로 흥겨운 분위기를 살렸고,
두 음을 동시에 긋는 더블스탑을 깔끔하게 선보이며 박수를 받았다.



상상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낭만주의로 향하는 혁신의 문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베토벤은 자신의 음악에 대한 엄청난 자부심과 더불어 우연으로 권력을 누리게 된 귀족들과 달리 노력으로 일궈낸 본인의 명성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살았다.

베토벤의 삶에 대한 가치관은 그의 음악을 통해서도 드러났다. ‘하일리겐슈타트 유서’ 를 쓴 1802년, 그는 자신이 곧 청력을 잃게 될 것임을 알게 되고 절망에 빠졌다. 그러나 체념하지 않고 예술과 음악에 대한 사랑으로 이를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다졌고, 실제로 그의 걸작들은 모두 이 시기를 전후해 쓰였다.

브람스의 ‘헝가리안 무곡’ 5번

피아니스트로 유명한 요하네스 브람스는 헝가리 출신의 바이올리니스트 에드 레메니를 만나 함께 음악을 하였다. 레메니의 영향으로 1869년 ‘헝가리안 무곡집’을 출판했고, 총 21곡의 레퍼토리 중 5번은 지금까지도 사랑받으며 브람스의 대표곡 중 하나가 되었다.

강연자님께서 들려주신 ‘헝가리안 무곡’ 5번은 춤곡의 정수를 보여주는 듯했다. 활을 현에 튕기듯 연주하는 기법인 스피카토로 흥겨운 분위기를 살렸고, 두 음을 동시에 긋는 더블스탑을 깔끔하게 선보이며 박수를 받았다.

정리 오을<서울대 경영학과 2학년 · 장학회52기>



재단지원 신간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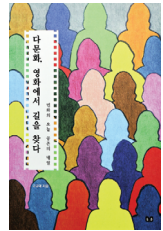


소멸시대 폭식사회(박현갑 지음)

역대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공과를 평가하고, 기존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균형발전 시책의 성공조건을 제시한다. 리북, 15,000원

다문화, 영화에서 길을 찾다(고규대 지음)

영화 속 다문화 이야기를 소개하고 정부의 통계, 사회의 현실, 바람직한 다문화 미래상을 다뤄 한국 인구 구조와 이민 사회, 다문화사회에 대한 방향을 제시한다. 슬:B, 16,9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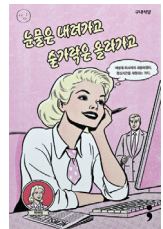


두 얼굴의 중국 경제(오광진 지음)

중국 경제의 미래는 내리막길만 남았다는 '쇠락론' 과 여전히 육일승천할 것이라는 이른바 '굴기론' 으로 살펴본다. 슬과학, 23,000원

구내식당: 눈물은 내려가고 손가락은 올라가고(곽아람 지음)

구내식당을 매개로 직장인의 일하는 슬픔과 기쁨을 살핀 에세이. 메뉴에 일희일비하는 직장인의 표정, 허끝으로 맛보는 일의 감각 등을 에피소드로 버무린다. 세미콜론, 12,000원



금융의 최전선(권선무 지음)

글로벌 핀테크의 주요 흐름을 이코노미스트, 월 스트리트 저널, 뉴욕타임스 등을 통해 분석. 블록체인과 AI, 금융의 융합 등 미래 금융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다룬다. 파지트, 18,800원

모든 날 모든 장소(채민기 지음)

건축 분야 담당 기자 아빠의 미국 소도시 생활기. 미술관, 학교, 놀이터, 식당... 일상의 건축에서 발견한 예술의 힘, 공간의 언어를 기술한다. 문학동네, 18,000원



books
new

재단지원 신간안내



경이로운 문명 인프라(백우진 지음)

문명이 발전한 모든 곳에는 반드시 토목이 있다. 문명을 건설해온 교량, 도로, 운하, 터널 등 토목의 공학과 역사를 풀어낸다. 사개모개, 16,800원

퇴근 후 봄이 옵니다(김연수 외 공저)

다둥이 워킹맘, 워킹대디의 육아일기. 육아로 단결한 직장 동료들이 서로 다른 육아 주제를 각자의 시선에서 풀어내고 서로에게 안식을 주는 직장인 에세이. 미다스박스, 18,500원



여론을 둘러싼 갈등 해부서(정일권 지음)

정치 진영별 여론 갈등을 여론개념의 유형화, 여론과 미디어의 관계, 여론의 정치적 기능, 여론과 여론조사의 관계 등을 고찰하면서 그 답을 구한다. 컬처북, 24,000원

날씨의 문장들(신방실 지음)

기상전문기자가 날씨의 언어로 읽어 주는 문학 그리고 삶. 문학과 현실을 오가며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기후 위기와 재난에 대해서도 짚어본다. 이음, 18,000원



저널리즘 리얼리즘(김정훈 지음)

뉴스 생산 과정에서 언론인들이 마주하는 현실적 고민을 '팩트와 해석', '인지 편향', '사실과 진실' 같은 키워드로 조명하고, 언론 윤리와 출입처 제도 등 제반 문제를 풀어낸다. 광문각, 18,000원

AI를 이기는 힘, 편집을 배워라(김형진 지음)

신문 편집이 이 시대의 화두인 AI와 일맥상통. 16개 챕터로 구성된 결과문을 통해 편집과 AI의 공통분모를 파헤친다. W미디어, 14,800원





재단지원 신간안내



당신에게 말을 거는 책(정석영 지음)

다큐멘터리 PD가 본 문화예술 · 역사 기행서. 유수의 공연과 미술관, 박물관 등을 탐닉하고 그 경험을 예술과 문화, 역사의 다양한 측면에서 탐구한다. 다할미디어, 25,000원

부의 씨앗, 부의 싹(이기원 지음)

부동산을 대하는 마인드와 심리, 실거래 사례, 관련 법률과 세금 문제까지 실전 투자에 도움을 주는 부동산 투자 이야기. 문예바다, 18,000원



차이나별곡(유광중 지음)

전체주의의 틀을 강화하고 사회주의 이념에 매몰되어가는 중국의 본질과 실상을 제대로 이해하는 우리 지식사회의 노력을 제안한다. 책밭, 17,000원

우울탈출법(함영준 지음)

평정과 휴식으로 이끄는 마음 기술. 우울, 무기력, 루미네이션... 반복되는 부정적 생각을 멈추는 자기돌봄의 지혜를 담는다. 북스톤, 20,000원



어린이를 위한 국군 무기 이야기(맹수열 지음)

K-방산의 핵심 라인업 무기들의 현주소를 어린이들이 알기 쉽게 풀이했다. 어린이들에게 강한 국방은 자부심으로, 꿈과 희망을 심어줄 것이다. 바른북스, 16,800원

인공지능 저널리즘(권만우 지음)

생성형 인공지능기술과 저널리즘, AI의 창의성과 한계, AI 응용분야와 미디어, AI알고리즘과 큐레이션을 중심으로 콘텐츠 산업에 대해 기술했다. 서울인스티튜트, 18,000원



books
new



생활 속 시각 디자인(이민형 지음)

우리 주변에 가득한 시각디자인을 다시 들여다보며, 그것이 어떻게 사람의 감정을 흔들고 메시지를 전달하며, 사회를 변화시키는지를 생활 속 사례를 들어 디자인의 원리와 심리를 풀어냈다. 푸른박스, 23,000원

한국언론 연대기(정진석 지음)

최초의 근대신문 한성순보부터 일제강점기, 광복, 민주화 과정을 거치는 동안의 현대사 순간을 기록했던 언론의 역사를 건조체 연대순으로 정리했다. 민속원, 73,000원



사상의 자유시장이라는 오해(문재완 지음)

표현의 자유가 갖는 헌법적 의의부터 사안의 해결까지 살피고, 가짜뉴스 · 이적 표현 · 혐오 표현 · 플랫폼 독과점 등 다양한 쟁점을 황적으로 분석해 표현의 자유가 민주주의 실현의 토대로 기능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한다. 늘봄, 22,000원

한국 귀신고래를 아십니까?(이영훈 지음)

우리 옛 기록 속의 고래 이야기, 반구대 암각화의 고래 그림과 장생포의 포경 역사, 고래와 인류의 역사를 신고, 한국 귀신고래의 연구 과정도 소개했다. 솔과학, 30,000원



맞춤법 상식사전(김형택 지음)

KBS <우리말 겨루기> 제64대 달인이 집필한 맞춤법 안내서. 헛갈리는 우리말 맞춤법, 띄어쓰기, 외래어 등을 실제 사례를 들어 알려준다. 실전 문제도 수록했다. 황금알, 2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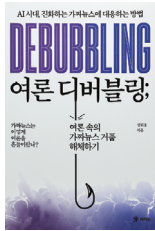
극우 미디어의 습격(김현석 지음)

감정 조작과 허위 정보가 어떻게 사회 내전의 불씨가 되었는가를 추적하고 저널리즘의 위기와 그 구조적 원인을 밝힌다. 그린비, 18,000원





재단지원 신간안내



여론 디버블링(정위용 지음)

급성장한 가짜뉴스의 생산과 기생 메커니즘, 고도화 단계별 특성을 파헤쳐 그 유형을 구조화하고 판별법과 대처법을 제시한다. 라의눈, 25,000원

길 위에서 만난 커피(조영미 지음)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기호식품 커피가 어떻게 한국에 들어와서 어떻게 문화적으로 소비되고 있는지를 추적하고, 세계 유명 커피 산지 국가의 도시를 탐방한 기록과 자료를 공유한다. 다시부산, 13,000원



K방산 신화를 만든 사람들(정한국, 이정구, 성유진 공저)

세계 일류의 한국 방위 산업을 일군 개발자와 현장 기술자들, 해외 수출길을 개척해 온 K방산 기업인들의 삶과 생각을 기술하고 방위 산업이 나아갈 길을 제시한다. 더봄, 25,000원

한국의 꽃담(이종근 지음)

우리나라 궁궐, 대갯집, 시골 고샅길의 담장과 굴뚝 등을 돌아보며 사연을 담고 이야기를 곁들여 풀어낸다. 신아출판사, 20,000원

